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국 음악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와 국내의 중등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 비교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수 진

미국 음악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와 국내의 중등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 비교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수 진

인 준 서

김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등학교 음악교육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의 제안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내의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국내 중등학교와 미국 음악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의 외국인학교 2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음악교육프로그램 및 활동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구성체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한국의 개정안에서 성격항목을 추가하고 교수·학습방법 내용을 평가와 통합기술하며 더욱 유사해졌다. 내용체계에서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학습내용을 3개의 영역(표현, 감상, 생활화)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미국은 현행안에서는 영역구분 없이 9개의 음악활동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개정안에서는 이를 4개의 영역(창작, 연주, 반응, 연계하기)으로 구분하고 11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관찰 가능한 행동 범주 내에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개정안에서는 기존보다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기술하고, 미국은 기존의 성취기준이 아닌 수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와 미국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6-12학년)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내 중등학교에서는 음악을 중학교는 의무교과로, 고등학교는 선택교과로, 외국인학교에서도 중학교(6-8학년)는 의무교과로, 고등학교(9-12학년)는 선택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영역별(표현, 감상 및 생활화)로, 외국인학교에서는 일반음악,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음악심화과정 등 음악활동별로 세부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외

국인학교에서는 음악활동별로 수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 모두 음악 정규수업 이외에도 음악선택활동을 진행하고, 국내 중등학교는 방과 후 활동만을, 외국인학교는 수준별로 다양한 음악분야 방과 후 활동과 심화선택교과를 구성·운영하여 음악연계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실용 가능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음악프로그램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3. 연구 문제	3
4. 연구의 제한점	4
5. 선행연구 고찰	4
II . 이론적 배경	10
1.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체계	10
가. 총괄내용 비교	10
나. 세부내용 비교	11
2. 미국 1994와 2014 개정 음악교육기준	18
가. 총괄내용 비교	18
나. 세부내용 비교	19
III . 미국과 한국의 중등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 분석	23
1. 한국과 미국 음악교육과정 비교	23
가. 구성체계 비교	23
나. 내용체계 비교	25

다. 성취기준/수행기준 비교	29
2.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들의 음악교육프로그램 비교	44
가. 총괄내용 비교	44
나. 음악교육 목표	46
다. 음악교과/활동 내용체계	47
라. 음악교과/활동 성취기준	57
IV . 결론	64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차 례

<표 1> 연구대상 분류표	3
<표 2>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체계 및 과목	11
<표 3> 2009와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과 과정 세부내용	12
<표 4> 2009와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세부내용	16
<표 5> 미국 1994와 2014 개정 음악과 기준 교육과정 총괄내용 비교	19
<표 6> 미국 1994와 2014 개정 음악과 기준 교육과정 세부내용	20
<표 7> 한국과 미국의 현행과정과 개정안 교육과정 구성체계	24
<표 8>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내용체계	26
<표 9>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내용체계	28
<표 10>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성취(수행)기준	30
<표 10-1> 미국의 중학교 현행교육과정 성취기준 예시	32
<표 10-2> 미국 2014년 중학교 음악교육기준 개정안의 수행기준 예시	33
<표 10-3> 미국 8학년 기준 2014년 개정안의 수행기준 예시	35
<표 11>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성취(수행)기준	38
<표 11-1> 미국 고등학교 현행교육과정 성취기준 예시	40
<표 11-2> 미국 2014년 고등학교 음악교육기준 개정안의 수행기준 예시	41
<표 12>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 구성체계 및 과목	45
<표 13> 국내 중등학교 및 외국인학교의 음악교육 목표	47
<표 14> 학교별 음악교과/활동 내용	48
<표 15> 학교별/학년별 음악교과/활동 세부내용	50
<표 16> 국내 중학교 음악교과 세부내용	51
<표 17> 국내 고등학교 음악교과(음악과 생활) 세부내용	53

<표 18> 국내 외국인학교 음악활동 세부내용	55
<표 19> 독일 외국인학교의 학년별 음악활동 세부내용	56
<표 20> 국내 중학교 음악교육 성취기준	57
<표 21> 국내 고등학교 음악교육 성취기준	58
<표 22> 국내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수행기준	60
<표 23> 독일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내용 및 수행기준	6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정보화, 국제화 사회에서 학교교육 과정 내에서의 음악교육은 새로운 음악관련 지식 및 정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고, 획일적인 커리큘럼 대신 개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통해 가능한 균형 잡힌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은 1906년 음악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등장한¹⁾ 이후 2015년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까지 매번 교육과정이 변화될 때마다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적절한 음악교육을 통한 사춘기 청소년들의 정서 및 인격 함양, 예술적 감수성 및 창의력 계발 등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중등학교 음악 공교육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중등학교 음악교육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의 제안 및 개선 방향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이 미국의 교육이론 및 교육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온 온 것에 대한 주목하고자 한다.²⁾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음악교육과정과 음악을 포함한 각종 예술교육을 통해 전인간적인 인격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음악교육정책(기준)을 살펴보고, 양국에서 향후 추진예정인 음악교육과정 개정안을 각각 비교·분석하여, 국내 음악교육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총론, 학지사, 2013, p. 186.

2)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p. 58.

미국음악 교육정책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와 국내 중등학교의 음악교육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음악교육은 국가에서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각 주 별로 정책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립하며,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미국 교육과정을 따르더라도, 학교의 소재지 및 학교 자체의 교육전략 등에 따라 학교별 세부 프로그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미국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을 비교하여, 학교별로 자체 특화된 글로벌 음악교육 전략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음악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체계와 미국 1994와 2014 개정 음악교육기준을 기반으로 양국 음악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미국 음악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와 국내의 중등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을 비교·연구 한다.

학교별 교육과정 비교·연구를 위해서 미국의 음악교육정책을 기반으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 소재의 외국인학교 2개교 - 국내 비교 대상학교와 같은 도시(서울)에 위치한 국내 외국인학교, 독일의 산업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 외국인학교 - 국내 중등학교 2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음악교육과정의 목표, 구성체계, 내용기준, 수행기준을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합창(Choir), 밴드(Band), 오케스트라(Orchestra) 활동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논문, 학술지, 단행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각 학교 교육홈페이지, 4개 학교의 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교육과정 문서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개별 연구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분류표

구분	음악교육과정	대상학교	소재지
국내학교	한국교육과정	국내 중학교	한국
		국내 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미국교육과정	국내 외국인학교	한국
	미국교육과정	독일 외국인학교	독일

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 자료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음악교육과정(또는 교육정책)에서 추구하는 방향 및 전략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음악교육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행기준을 제안한다.

둘째, 서울소재 국내 중등학교와 조사대상 외국인학교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국내 중등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외국인학교의 특징적인 음악활동 및 교수방법 등을 제시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한국의 중등학교, 한국, 독일 소재의 외국인학교 1개교의 음악교육현황만을 조사·비교·분석하였으므로, 결과가 모든 한국의 중등학교와 한국, 독일의 외국인학교 음악교육 현황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연구대상 학교들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둘째, 학교 소재지와 음악프로그램의 비교를 위해, 국내 중등학교 대상 학교는 합창(Choir), 밴드(Band), 오케스트라(Orchestr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소재 중등학교에서 선정하고, 외국인학교는 산업화 도시인 서울(한국)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독일)³⁾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선행연구 고찰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 음악교육과정에 관한 논문들을 고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국내의 발행된 여러 연구 중 한국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 음악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비교한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고찰된 논문은 외국인학교 주제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 연구로 제한하였고, 석사학위 논문과 연구기관의 자료, 단행본, 학술지 등으로 살펴보았다.

석사학위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덕전(2011)은 「한국, 미국, 이스라엘의 과학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비

3) <https://english.hessen.de/economy/financial-center-frankfurt>, 2016년 3월 접속.

교 연구」에서 과학영재들에게 있어 음악교육이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국내·외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여 과학영재를 위한 음악교육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내용, 미국과 이스라엘 과학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국내·외 과학고등학교의 음악교육과정을 종합·비교하여 국내 과학고등학교의 음악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과학 영재들을 위한 음악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국내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음악과 정교사가 재직 중인 곳이 적었으며, 음악실 또한 미흡하였다. 반면 미국 과학고등학교는 음악교육과목 수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개설된 음악 교과목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은 학생들 각자의 흥미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간학문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과학영재들은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음악교육으로 차별화되어야만 하며, 전문성을 지닌 음악교사를 육성하고 다양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김민희(2013)은 「한국과 영국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영국의 음악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과 교육방향을 시대 순으로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영국은 모두 국가교육과정을 설정하였지만 영국은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사의 재량으로 수업안을 제시하여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수업을 진행하며 인성 위주의 내용이 중점이 되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이 변화를 하였지만 내용면은 거의변한 것이 없었고,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의하여 수업을 진행하지만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평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반면 한국은 음악적 이론에 입각한 교육을 보여주고 있어 창의력을 저

해 시키는 교육과정으로 개인적인 기여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교육과정의 내용 변화가 매년 달라지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평가도 영국은 한국과는 달리 기관들에게서 출제된 시험을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만 평가 받는다. 이렇듯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앞으로의 한국 음악교육과정의 제안점으로 자율성 보장, 음악학습 안에서의 음악교육의 철학, 지향점, 목표 등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효율성 있는 창의적 음악교육을 구축하여 충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기간이 주어져야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성은(2010)은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에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두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음악교육철학, 사회적 변화, 시대적 요구의 반영을 알아보고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장점과 미국의 음악교육과정의 장점을 더하여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의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선행논문, 단행본, 학술지를 기초 자료로 이용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차이점이 있었지만 두 나라 모두 음악교육을 통한 미적 감수성, 창의성 계발에 초점을 맞추고 음악적 활동을 중시하며, 다른 교과나 다른 문화, 매체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앞으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창작, 즉흥 연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실내악과 관현악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악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지원(2009)은 「미국, 독일, 호주의 음악교육 분석에 따른 한국에서 효과적인 음악수업 지도방안」에서 음악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몇 개를 선정하여 음악 교육과정과 학습 및 평가 내용, 수업방식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우리나라와 견주어 비교정리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효과적인 기악 음악수업 지도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 독일, 호주의 음악교육 정책에 대해 연구하여 자율성, 생활음악, 음악 투자에 대한 특징들을 발견하였다.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기악수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학생 연주기회의 확대, 호기심 자극을 제안점으로 제시하였다.

송주현(2011)은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중심」에서 영국, 캐나다 퀘벡 주의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분석하고 두 사례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먼저,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설계된다.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시 역량의 음악 교과적 적용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방향이 있을 수 있으며, 총론 차원의 일반적 역량을 음악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과 음악교과 특수 역량을 설계하는 것이다.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절차상의 원칙과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는 음악 교육과정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송지민(2015)은 「한국과 호주 NSW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에서 한국과 호주 NSW주의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호주의 음악교육 방식을 살펴보고 한국 음악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들을 제언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영역의 구분, 음악 장르, 과목 구분, 특수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포함 여부, 평가의 방식이 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한 결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양국의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호주 NSW주에서 생활화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음악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다. 둘째, 늦은 시기에 음악을 선택하여 배우게 되더라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수업시간에 컴

퓨터 음악을 배우는 것을 강조하여 연주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도 창작과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음악 과목은 악기 연주가 불가능하고 음악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선택 가능하다. 다섯째, 평가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학생의 변화된 음악적 성취도를 평가한다. 여섯째, 생활기술 과정을 통해 특수 학생들도 음악을 배울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 지금까지 한국의 장점과 호주 NSW주의 음악 생활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한국 음악 교육 실정에 맞게 반영한다면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음악을 생활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정혜정(2007)은 「외국인 학교 음악 교육 현황 연구」에서 한국과 전혀 다른 체제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국인 학교의 음악교육의 장점을 찾아보고, 효율적인 교육의 접근방법과 체계를 찾아서 한국 교육에 다시 재 적용 할 수 있는 점들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 학교의 전반적 학교 시설현황을 알아보고 MENC의 음악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본 후 이에 기초하여 7개 학교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면접과 설문조사로 각 외국인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음악교육이 보다 나은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 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훌륭한 사회를 이룩하고 세계 음악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미국, 독일, 영국 등 다양한 나라들의 음악교육과정의 정의와 변천에 대해 조사된 바 있지만,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의 특징들만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을 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새로 개정되어 시행될 미국의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시기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체계 및 수행기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이들을 국내 음악교육 현장에 반영해 보

려는 시도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음악교육과정(또는 교육 정책)의 세부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미국 음악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와 국내의 중등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 및 활동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내 음악교육과정과 국내 중등학교 음악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체계⁴⁾

현재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론은 교육과정의 전체 방향, 학교 급별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배당기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 대해 그리고 각론은 각 과목별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⁵⁾ 한국의 교육과정은 총론이 먼저 고시되고 이후에 교육과정이 개발되기에 고시년도와 적용년도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본격적으로 1954년에 제정되어 1차 교육과정부터 7차까지 개정을 거쳐, 그 후 개정연도를 제시한 명칭을 사용하여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와 시행 예정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요약·정리하고 비교하였다.

가. 총괄내용 비교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체계는 크게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성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내용과 기준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통합하였다. 또한 음악과목명을 부활하여,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여 지도할 수 있게 하였다.

4) <http://ncic.re.kr>, 2016년 3월 접속.

5) 한혜정 외, 교육과정, 학지사, 2012, pp. 210-1 재인용.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체계 및 과목은 <표 2>와 같다.

<표 2>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체계 및 과목

구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고
구성체계		1. 목표 2. 내용의 영역과 기준 3. 교수·학습 방법 4. 평가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 성격항목 신설 · 내용명칭 변경 · 방법과 평가의 통합
교육 과목	중등	음악		음악		· 동일
	고등	일반선택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일반 선택	음악	· 음악과목명 부 활 · 과목명 변경
				진로 선택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나. 세부내용 비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2009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중학교 과정

중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성격항목이 신설하였고 내용영역별 지도를 성취기준에 통합하여 기술한 것이 눈에 띈다. 내용면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 및 계획과 학급별지도, 시설 및 기자재 내용과 평가의 결과 활용 내용은 동일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교육의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내용체계에 세부적인 성취기준을 추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009와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2009와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과 과정 세부내용

구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고
성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 ·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음악적 감성, 음악적 소통, 문화적 공동체, 음악정보처리,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음악지식의 심화 및 학습경험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교육 성격 및 효과에 대해 구체화 · 자기 관리 역량을 강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형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자기 표현능력을 신장, 자아정체성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능력 향상 및 자아정체성 강조
내용체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 (강조)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음악작품 만들어 표현하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표현에 집중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종류 및 배경 추가 · 감상 표현 추가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여 즐기며, 음악행사 참여하고 평하기 · (강조) 음악이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조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생활화를 강화
성취기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 주법으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 ·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또는 어울리는 신체표현 · 예술가곡, 민요를 듣고 노래로 표현 · 간단한 가락을 만들고 음악극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 제작 및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 · (강조)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다양성 및 창의성 강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 · 시대별 음악을 듣고 특징에 대해 설명 · 음악을 듣고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음악에 대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다양한 연주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 · (강조)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 표현 능력 강화 · 음악 작품의 배경교육 확대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음악을 활용하여 문화 행사에 참여 ·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음악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관련 산업에 대한 내용 추가
교수학습방법	방향 &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악곡을 활용하여 학습,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 ·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 · 학교, 학년,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음악학습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도 · 수업주제의 성격과 특징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 ·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여 지도 · 음악 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p>학 급 별 지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신체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음악표현 능력과 음악적 이해력 신장 ·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p>내 용 영 역 별 지 도</p>	<p>표 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에 따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표현 · 국악기, 타악기, 가락악기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개정 내용은 성취 기준에 통합하여 기술
<p>감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문화적으로 음악의 가치를 이해 · 실음을 통한 음악 개념 이해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미적체험 경험 · 다양한 음악사를 통해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춤 			
<p>생 활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춤 · 학교 내외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p>시 설 & 기 자 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위하여 되도록 음악 활동의 각 영역에 적합한 시설과 교구, 교재를 구비하여 활용. : 음악실, 악기, 멀티미디어, 음향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p>평 가</p>	<p>방 향 & 계 획</p> <p>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여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 · 실기 평가의 내용, 과제, 매체는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학업성취도에 평가,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개정: 방향, 2015 개정: 계획으로 기술
<p>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행동과 태도 변화를 반영 · 교사평가 뿐 아니라 상호평가, 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음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개정 평가 방법에서 일부 항목을 평

	<p>평가 병행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실기, 지필, 관찰, 포트폴리오, 보고서 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 · 내용 영역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기초 기능, 표현, 태도 : (감상) 포괄적 이해 정도와 태도 : (생활화)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 참여 정도, 생활화 실천 정도 		<p>가 및 계획으로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내용 정리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개인차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학습 지도 계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2)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또한 성격항목을 신설하고, 학습내용은 표현, 감상, 생활화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세부내용과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목표와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분야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2009와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2009와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세부내용

구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차이점
성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 ·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음악적 감성, 음악적 소통, 문화적 공동체, 음악정보처리,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음악지식의 심화 및 학습경험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교육 성격 및 효과에 대해 구체화 · 자기관리 역량을 강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을 이해하여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 표현능력을 신장,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능력향상 및 문화의 다원적 가치 강조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과 소통)악곡 구성의 요소와 원리 이해,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표현의 즐거움,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이해 ·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사회현상 및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이해 및 다양성 존중, 지구촌의 음악적 쟁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 (감상)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역사·문화적으로 구별하고 비평, 음악적 특징을 표현 · (생활화)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여 즐기며, 음악행사 참여하고 평가, 음악이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음악관련 직업에 대해 조사 및 발표, 국악의 생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체화
성취 기준	<p>(음악과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특징을 설명 또는 표현 · 기존 악곡의 편집, 창작, 연주를 통한 다양한 표현 및 설명 · 공동음악활동을 통한 소통 	<p>(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 ·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음악 작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개정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기술 ·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가치판단과 타 경험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토론 ·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현상 및 음악적 차이점, 갈등과 소통에 대해 발표 · 장르의 해체와 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 <p>(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 ·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 ·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 <p>(생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 및 비평 · 음악관련 직업에 대한 조사 및 발표 · 국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교수 학습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목표 및 근거로 구성 · 학생의 특징에 따라 내용 및 영역을 재구성하여 지도 · 타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도 · 관찰과 토론, 이해 활동을 병행 · 다양한 음악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정간보, 구음보, 추임새 넣기를 국악 활동에 활용 · (강조) 자기 주도적 학습 유도 	· 다양한 국악 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 강조
	평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타당도, 신뢰성을 높임 · 교사와 학생이 평가의 기준을 공유 · 참여의 적극성, 창의성을 반영 ·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 · 평가결과를 수업 계획과 개선 방안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학업 성취도, 행동과 태도 변화 반영 · (강조) 음악의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학생의 이해도, 판단력에 따라 평가 	· 학업성취도, 태도, 이해도, 판단력을 중시

2. 미국 1994와 2014 개정 음악교육기준

미국교육은 지방 분권제로 주 정부가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주변 상황에 따라 적합한 학교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교육 권한은 지방교육위원회나 지역학교구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재정적 후원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교육체제가 교육적 수월성을 추구하기보다 평등성을 강조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을 개발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목표 2000: 미국 교육법(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의 입법화’를 추진하여, 이 기준에 따라 주별로 교육과정의 학습성취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2010년에 미국연방정부는 주별로 교육과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전미 50개 주가 동의하는 국가 수준의 통일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육감협의회와 전국주지사협회의 주관 하에 국어와 수학교과에 대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그 후 2014년에는 무용, 미디어 아트, 음악, 연극, 미술협의회로 구성된 위원회의 주관 하에 예술교과에서도 국가핵심예술기준(National Core Arts Standards)을 마련하였다.⁶⁾

가. 총괄내용 비교

1994와 2014 개정 음악교육기준의 구성체계는 크게 지향점, 내용체계, 성취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4에 비해 2014년 개정 기준은 구성체계의

6) 최미영, “미국 국가핵심음악기준의 분석적 고찰”, 음악교육공학, 2015, p. 80.

각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평가도구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1994와 2014 개정 음악과 기준 교육과정 총괄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미국 1994와 2014 개정 음악과 기준 교육과정 총괄내용 비교

구분	1994 기준	2014 기준	비고
지향점	기술과 지식의 습득	음악 문해력 확장	정확한 이해와 소통 능력 강조
내용체계	전체 음악영역에 대한 9가지 내용기준 제시	4가지 음악예술의 과정(창작, 연주, 반응, 연계)을 구분하여 11개 주요기준 제시	과정 및 내용기준 분류 세분화 연계하기 과정 추가
성취기준	5-8학년 학년군에 따라 통합적 성취기준 제시	·학년 수준별 수행기준 제시	수행기준 수준 구체화
	9-12학년 2단계로 구분하여 성취기준 제시	4개의 과목분야별로 3단계 수행기준 제시	분야별 과목 분류 수행단계 세분화
평가도구	-	성취도 판단을 위한 MCA(Model Cornerstone Assessment) 제공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제적인 평가도구 제공

나. 세부내용 비교⁷⁾

1994와 2014 개정 음악교육기준은 성격, 목표, 내용기준, 성취기준, 평가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2014 개정 음악교육기준안은 1994 개정안

7) <http://www.nationalartsstandards.org>, 2016년 3월 접속.

보다 성격, 목표, 내용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기술하였다. 두 기준안 모두 성취기준(수행기준)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만 2014 기준에서는 이들을 더욱 세분화하고 심화시켜 기술하고, 평가도구를 따로 제시하였다.

1994와 2014 개정 음악과 기준 교육과정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미국 1994와 2014 개정 음악과 기준 교육과정 세부내용

구분	1994 기준 (Goal 2000)	2014 기준	비고
성격	교수·학습 방법과 예술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타 교과간의 상호관련성과 평가를 강조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의 틀을 제안	소통으로서의 예술, 창의적인 자기 실현으로서의 예술, 문화·역사의 연결 장치로서의 예술, 복지수단으로서의 예술, 공동체 참여로서의 예술에 철학적 기초를 둔	· 예술의 상호 작용과 구체적 목표 실현 강조
목표	음악 교육에 포괄적인 음악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습 기회를 넓히며, 음악교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상호 관련성을 모색	학생들의 음악적 문해력(Music Literacy)을 계발하기 위하여 잠재된 창의성을 계발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여 삶의 질 향상	· 지식 습득을 넘어 예술적 소통 능력 향상 추진
내용 기준	4. 지시에 따라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한다.	<p>*창작하기(Creating)</p> <p>1. 학생들은 예술적 아이디어와 작품에 대한 생각을 발현시키고 개념화할 수 있다.</p> <p>2. 학생들은 예술적 아이디어와 작품을 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p> <p>3.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수정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p>	<p>· 작품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해석 능력 강조</p> <p>·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 제시</p>
	<p>1.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을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노래한다.</p> <p>2.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을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악기 연주한다.</p>	<p>*연주하기(Performing)</p> <p>4. 학생들은 연주발표를 위해 예술 작품을 선택, 분석, 해석할 수 있다.</p>	

		<p>3. 가락, 변주곡, 반주를 즉흥 연주한다.</p>	<p>5. 학생들은 연주발표를 위해 예술적 테크닉과 작품을 발전시키고 수정할 수 있다.</p> <p>6. 학생들은 예술작품의 연주발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p>	
		<p>5. 음악을 읽고 쓴다.</p> <p>6. 음악을 듣고 분석하고 서술한다.</p> <p>7. 음악과 음악연주를 비평한다.</p>	<p>*반응하기(Responding)</p> <p>7.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분석할 수 있다.</p> <p>8. 학생들은 예술작품의 의도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p> <p>9.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p>8. 음악과 다른 예술과목, 음악과 예술 이외의 다른 과목과의 관계를 이해한다.</p> <p>9. 역사와 문화에 관련하여 음악을 이해한다.</p>	<p>*연계하기(Connecting)</p> <p>10.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관련지을 수 있다.</p> <p>11. 학생들은 이해의 심화를 위해 예술적 아이디어와 작품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을 수 있다.</p>	
성취 기준	5-8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5학년-8학년)에서 도달 가능한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제시 (25-3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의 주요기준에 맞추어 13개 음악 활동 과정요소에 대한 23개 수행기준 (Performance Standards) 제시 - 주요기준 이외에 전이 가능성이 높은 주요개념 및 핵심질문 등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준 수준 구체화 · 학년에 따른 학습의 심화 정도 제시
	9-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음악 선택과목에 대해 2단계로 구분된 수행기준 제시 · 초급(Proficient), 상급(Advanc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과목분야(양상블, 이른 및 작곡, 음악테크놀로지, 건반악기)로 분류하여 수행기준 제시 - 분야별로 각 3-5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기준 제시 · 초급(Novice), 중급(Intermediate), 상급(advanced), 고급(HS Accomplished), 최고급(HS Advanc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과목 분류 · 수행단계 세분화(2→3-5)

평가	별도로 제공되는 평가도구 없음	MCA(Model Cornerstone Assessment)를 평가 도구로 제시 내재된 전략, 상세한 평가절차,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과 기술 및 개념에 대한 주요용어, 개별학생의 요구와 강점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및 특수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전략, 루브릭·체크리스트·평정표 등의 채점방법, 평가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평가중점, 학생작품의 평가사례로 구분	· 실 용 적 으 로 활 용 가 능 한 평가도구 제시
----	------------------	--	-------------------------------

1994와 2015 개정안의 내용기준에서 1994 개정안 내용은 번호와 별도로 내용에 따라 영역별로 2015 개정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Ⅲ. 미국과 한국의 중등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 분석

1. 한국과 미국의 음악교육과정 비교

학교 교육의 근간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은 개정될 때마다 미국의 교육 사조를 따라왔다. 미국 교육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기본이념도 교과 중심에서 경험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⁸⁾

한국과 미국의 중등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예정인 음악교육과정(기준)을 서로 비교하여, 각국의 음악교육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방법의 차이점 등을 분석해 보고, 이들 교육과정에 따라 현장에서 음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중등학교 2개교와 외국인학교 2개교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을 각각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구성체계 비교

2009 개정 음악교육과정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1994년 교육기준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개정안인 2015 개정안은 중학교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미국은 2014년에 최종 발표된 개정안으로 주별로 점차적으로 적용 예정이다.

현행 음악교육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음악교육의 성격 항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목표 안에 포함시켰으며, 대신 교수·학습 방법을 따로 분리하였다. 한국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은

8)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p. 58.

9가지 내용 기준에 대해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적용 예정인 두 나라의 음악교육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국은 통합되어 설명되었던 성격과 목표를 따로 구분하고, 교수·학습 방법 항목을 평가에 통합하였으며, 성취기준을 부각시켜 예전보다 미국과 유사한 구성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이 현행교육과정부터 표현, 감상, 생활화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한데 반하여, 미국은 2015 개정안부터 창작하기(Creating), 연주하기(Performing), 반응하기(Responding), 연계하기(Connecting)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내용과 수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음악교육 현행과정과 개정안의 구성체계는 <표 7>과 같다.

<표 7> 한국과 미국의 현행과정과 개정안 교육과정 구성체계

구분	교육과정 구성체계		비고
	한국	미국	
현행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2. 내용의 영역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표현, 감상, 생활화)에 대한 내용과 기준 제시 3. 교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및 내용영역별 지도 4.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 2. 목표 3. 내용기준(Content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가지 내용기준 제시 4.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에 따라 통합적 성취기준 제시 5.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성격 항목을 따로 구분 · 한국은 교수·학습방법 항목을 분리하여 제시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표현, 감상, 생활화)에 대한 내용과 기준 제시 4.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영역별 지도내용을 평가와 연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 2. 목표 3. 내용기준(Content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에 대해 총 11가지 내용기준 제시 4. 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학년) 학년별로 활동과정요소에 대한 수행기준 제시 - (9-12학년) 과목분야(4개)에 따른 단계별 수행기준 제시 5. 평가 : 별도의 평가도구 제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 성격항목 추가 · 미국도 영역을 구분하여 내용기준 기술 (한국은 3개, 미국은 4개 영역으로 구분) · 한국도 교수·학습방법 내용을 평가와 통합하여 기술

나. 내용체계 비교

1)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현행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내용체계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은 학습내용을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지만 미국은 영역을 나누지 않고 9개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학습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가창, 기악, 연주, 창작 등의 음악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는 내용을 제시하지만 한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연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넷째, 미국은 음악과 타 과목과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적 이해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음악의 생활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타과목과의 연계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영 예정인 최근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모두 영역별로 구분된 내용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현행과정과 마찬가지로 표현, 감상, 생활화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습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창작하기, 연주하기, 반응하기, 연계하기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두 나라의 영역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창작하기, 연주하기는 한국의 표현 영역에, 반응하기는 감상 영역에, 연계하기는 생활화 영역과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학습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나며, 이는 나라별로 음악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세부목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미국은 한국보다 창작하기와 타 과목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연계하

기 영역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현행과정과 개정안의 내용체계는 <표 8>과 같다.

<표 8>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내용체계

구분	교육과정 내용체계		차이점
	한국	미국	
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바른 자세로,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 · (감상) 음악의 요소/개념 및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 · (생활화) 음악을 즐기는 태도 배양 및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을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①노래, ②악기연주, ③즉흥연주 · 음악을 ④지시에 따라 작·편곡하고, ⑤읽고 쓰고, ⑥듣고 분석·서술하며, ⑦ 연주한 것을 비평 · 음악과 ⑧다른 과목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⑨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합주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한국은 타과목과의 연계에 대한 언급이 없음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노래, 악기연주, 신체 표현, 음악작품 제작 등) · (감상)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의 요소/개념을 이해·설명하고, 음악의 종류와 역사·문화적 배경/특징을 구별·비평 · (생활화) 생활에서 음악을 활용하여 즐기고, 음악행사 참여하고 평하며, 음악이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해·조사·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하기, Creating) 학생들은 예술적 아이디어와 작품과 관련하여 ①발상·개념화하고, ②구성·발전하며, ③수정·완성 · (연주하기, Performing) 학생들은 연주발표와 관련하여 ④예술작품을 선택·분석·해석하고, ⑤예술적 테크닉과 작품을 발전·수정하며, ⑥공연을 통해 의미를 전달 · (반응하기, Responding)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⑦지각·분석하고, ⑧작품의 의도·의미를 해석하며, ⑨평가기준을 적용 · (연계하기, Connecting) 학생들은 ⑩예술작품 창작을 위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연계하며, ⑪이해의 심화를 위해 예술적 아이디어와 작품을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3개의 영역으로, 미국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 · 한국은 음악 창작 영역에 대한 내용이 미국에 비해 다소 미흡

2) 고등학교 과정

현행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은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한국은 표현과 소통,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으로 내용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지만, 미국은 영역을 나누지 않고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가창, 기악, 연주, 창작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한국은 사회적·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은 이외에도 역사적 맥락과 타 과목과의 연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모두 공통적으로 학습내용을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3개의 영역, 미국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미국은 창작과 타과목과의 연계를 한국보다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현행과정과 개정안의 내용 체계는 <표 9>와 같다.

<표 9>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내용체계

구분	교육과정 내용체계		차이점
	한국	미국	
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과 소통) 악곡 구성의 요소/원리를 이해, 표현의 즐거움,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이해 ·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사회현상/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이해/다양성 존중, 지구촌 음악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을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①노래, ②악기연주, ③즉흥연주 · 음악을 ④지시에 따라 작·편곡하고, ⑤읽고 쓰고, ⑥듣고 분석·서술하며, ⑦ 연주한 것을 비평 · 음악과 ⑧다른 과목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⑨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합주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한국은 타과목과의 연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사회현상과의 연계를 언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 (감상)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의 요소/개념을 이해·설명하고, 음악의 종류와 역사·문화적 배경/특징을 구별·비평·표현 · (생활화) 생활에서 음악을 활용하여 즐기고, 음악행사 참여하고 평하며, 음악이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해·조사·발표하고 국악의 생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하기, Creating) 학생들은 예술적 아이디어와 작품과 관련하여 ①발상·개념화하고, ②구성·발전하며, ③수정·완성 · (연주하기, Performing) 학생들은 연주발표와 관련하여 ④예술작품을 선택·분석·해석하고, ⑤예술적 테크닉과 작품을 발전·수정하며, ⑥공연을 통해 의미를 전달 · (반응하기, Responding)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⑦지각·분석하고, ⑧작품의 의도·의미를 해석하며, ⑨평가기준을 적용 · (연계하기, Connecting) 학생들은 ⑩예술작품 창작을 위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연계하며, ⑪이해의 심화를 위해 예술적 아이디어와 작품을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3개의 영역으로, 미국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 · 한국은 음악 창작 영역에 대한 내용이 미국에 비해 다소 미흡

다. 성취기준/수행기준 비교

1) 중학교 과정

현행 한국과 미국 음악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관찰 가능한 행동의 범주 내에서 성취기준을 정하지만, 제시하는 영역에 따라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해 배울 내용과 성취해야 할 기준은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9개 항목에 대해 학년군(5-8학년)에서 도달 가능한 25-34개의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개정안에서는 양국 모두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현행과 같이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성취기준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11개의 주요기준에 맞추어 13개 음악 활동 과정요소에 대한 23개의 기준을 제시하되, 현행과정과는 다르게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이 아닌 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s)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과 학년에 따라 수행하게 될 실제 활동별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교육기준에 따라 진행할 실제 음악수업의 설계를 위해 수행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과정 요소마다 최소 한 개 이상 지속적 이해(Enduring Understanding)가 필요한 항목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질문(Essential Question)을 짚지어 제시하고 있다.⁹⁾ 결론적으로, 현행과정과 개정안 모두, 한국에 비해 미국이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음악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영역 및 세부 활동 내용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행기준들을 더욱 치밀하게 학년별로 기술하고 있어 기준에 대한 전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졌다고 생각된다.

9) 최미영, “미국 국가핵심음악기준의 분석적 고찰”, 음악교육공학, 2015, pp. 91.

중학교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현행과정과 개정안의 성취(수행)기준 비교표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성취(수행)기준

구분	중학교 교육과정 성취(수행)기준		비고
	한국	미국	
현행과정	<p>-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 주법으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 ·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또는 어울리는 신체표현 · 예술가곡, 민요를 듣고 노래로 표현 · 간단한 가락을 만들고 음악극으로 표현 <p>- (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 · 시대별 음악을 듣고 특징에 대해 설명 · 음악을 듣고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음악에 대해 이해 <p>- (생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음악을 활용하여 문화행사에 참여 · 세계 속의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5학년-8학년)에서 도달 가능한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제시 (25-34개) <p>※ 2014년 개정안과의 비교를 위해 내용기준별로 제시된 성취기준 중 일부내용만 발췌하여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하기 영역(내용기준1,2,3)의 성취기준은 <표 10-1>에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교육지침의 성취기준이 더욱 자세하게 표현됨
개정안	<p>-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 ·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 제작 및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 ·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의 주요기준에 맞추어 13개 음악 활동 과정요소에 대한 23개 수행기준 (Performance Standards) 제시 · 주요기준 이외에 전이 가능성이 높은 주요개념 및 핵심질문 등을 제시 <p>※ 수행기준은 매우 세부적이며 자세하여, 전문을 다 기술하기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정의 성취기준보다 전반적으로 모두 구체적으로 변화 · 미국은 23개의 수행기준으로 한국보다 성취기준이 더 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 · 중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 · 다양한 연주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 ·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 - (생활화) ·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 및 비평 · 음악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 및 발표 ·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한 조사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과의 비교 등을 위해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기술 · 연주하기 영역(내용기준1,2,3)의 성취기준에 대해서 6-8학년 성취기준은 <표 10-2>에 기술 · 예시로 8학년에게 요구되는 음악 분야 모든 과정의 수행기준은 <표 10-3>에 기술 	적
--	--	---

현재 시행중인 미국 중학교(6-8학년) 음악교육과정의 9개 내용기준 중에서 연주하기에 관련된 3개(노래, 악기연주, 즉흥연주) 항목만을 예시로 선정하여 항목별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표 10-1>과 같다. 학년군별(6-8학년), 내용기준별로 성취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1> 미국의 중학교 현행교육과정 성취기준 예시

미국현행과정의 내용기준 일부항목(노래, 악기연주, 즉흥연주)에 대한 성취기준 ¹⁰⁾	
내용기준	6-8학년에 대한 내용기준별 성취기준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혹은 합창단에서 자신의 음역을 조절하면서 바르게 호흡하면서 노래 · 음계를 다루는 2단계 수준의 여러 성악곡목을 표현력과 정확성을 가지고 외워서 노래 · 다양한 장르와 문화를 나타내는 음악을 어울리게 표현하고 노래 · 2-3성부 곡을 노래 · 3단계 수준의 성악곡목을 표현하고 기술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외워서 노래
다양한 레퍼토리의 악곡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혹은 오케스트라에서 한 가지의 악기를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연주 · 음계를 다루는 2단계 수준의 관악기, 현악기 등을 표현력과 정확성을 가지고 연주 · 다양한 장르와 문화를 나타내는 음악을 어울리게 표현하고 연주 · 간단한 선율을 외워서 선율악기를 연주하고 화음악기로 간단한 반주 · 3단계 수준의 기악의 연주곡을 표현하고 기술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외워서 연주
가락, 변주곡, 반주를 즉흥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화성반주들을 즉흥연주 · 5음 음계와 장조에서 나타난 간단한 선율, 리듬적인 변주, 꾸밈음을 즉흥연주 · 음악적 양식, 박자, 조성에 일관성을 가지는 리듬 반주에 맞추어 짧은 선율들을 즉흥연주

현행과정의 성취기준과 개정안의 수행기준을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 개정안에서도 4개 영역 중 연주하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시로 선정하여 살펴보면 <표 10-2>와 같다.

현행기준은 학년군별로(6-8학년 통합) 기준을 제시하는 데 반하여, 개정안은 각 학년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부 활동별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주하기

10) MENC, The School Music Program A New Vision, MENC, 1994, pp. 17-26

영역을 ①연주 작품의 선택·분석·해석하고, ②예술적 테크닉을 개발하고 보완하며, ③연구발표를 통해 작품의미를 전달하는 3개의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주요기준(Anchor Standard)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활동을 ①선택·분석·해석, ②리허설·평가·개선, ③발표 의 구체적 활동으로 세분화하여 각 활동별로 수행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심화되고 다변화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높은 난이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10-2> 미국 2014년 중학교 음악교육기준 개정안의 수행기준 예시

개정안에서 '연주하기' 영역의 수행기준 ¹⁾				
주요기준	수행기준			
	구분	6학년	7학년	8학년
연주 작품 선택·분석· 해석	선택	a. 교사가 제시한 수행기준 내에서 본인의 의도에 맞는 연주곡을 선정하고 선택에 대한 근거를 설명	a. 협력연주 수행기준 내에서, 특정한 목적·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서 연주할 수 있는 대조적인 스타일의 연주곡을 선택하고, 토론을 통해 가능한 표현 수준, 기술적 도전 범위, 선정 이유 등을 도출	a. 개별연주 수행기준 내에서 특정한 목적·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서 연주할 수 있는 대조적인 스타일의 연주곡을 선택하고, 가능한 표현 수준, 기술적 도전 범위, 선정 이유 등을 설명
	분석	a. 음악적 구조와 요소에 대한 이해 능력을 선택한 연주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	a. 선정된 연주곡에서 형식적으로 대조되는 부분들의 구조와 음악적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입증	a. 선정된 연주곡에서 형식적으로 대조되는 부분들의 구조를 비교하고, 음악적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
		b. 리듬, 음의 높낮이, 아티큘레이션, 강약법 등과 같은 표준 부호 기능을 활용해서 선정곡을 분석하고 식별	b. 리듬, 음의 높낮이, 아티큘레이션, 강약법, 박자, 음악 형식과 같은 표준 부호 기능을 활용해서 선정곡을 분석하고 식별	b.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 내에서 간단한 리듬, 멜로디, 하모니 기호를 활용해서 선정곡에 대한 조건 실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351 475 495"></td> <td data-bbox="475 351 692 495">c. 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td> <td data-bbox="692 351 959 495">c.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음악적 해석 차이를 확인</td> <td data-bbox="959 351 1214 495">c.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음악적 효과의 차이를 확인</td> </tr> <tr> <td data-bbox="432 495 475 817">해석</td> <td data-bbox="475 495 692 817">a.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선택된 작품을 해석하여 연주하고, 작가의 의도를 전달</td> <td data-bbox="692 495 959 817">a.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대조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해석하여 연주하고, 작가의 의도를 전달</td> <td data-bbox="959 495 1214 817">a. 대조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연주하고,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표현되는 악곡 해석 방법에 의해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입증</td> </tr> </table>		c. 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c.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음악적 해석 차이를 확인	c.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음악적 효과의 차이를 확인	해석	a.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선택된 작품을 해석하여 연주하고, 작가의 의도를 전달	a.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대조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해석하여 연주하고, 작가의 의도를 전달	a. 대조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연주하고,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표현되는 악곡 해석 방법에 의해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입증				
	c. 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c.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음악적 해석 차이를 확인	c.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음악적 효과의 차이를 확인										
해석	a.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선택된 작품을 해석하여 연주하고, 작가의 의도를 전달	a.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대조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해석하여 연주하고, 작가의 의도를 전달	a. 대조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연주하고,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 나누기 등)을 통해 표현되는 악곡 해석 방법에 의해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입증										
<p style="text-align: center;">예술적 테크닉 개발 및 보완</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831 475 1153">구분</td> <td data-bbox="475 831 708 1153">6학년</td> <td data-bbox="708 831 959 1153">7학년</td> <td data-bbox="959 831 1214 1153">8학년</td> </tr> <tr> <td data-bbox="432 1153 475 1160">리허설·평가·개선</td> <td data-bbox="475 1153 708 1160">a. 교사 제시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td> <td data-bbox="708 1153 959 1160">a. 협력연주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연주자의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감정적인 효과,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td> <td data-bbox="959 1153 1214 1160">a. 개인 맞춤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연주자의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감정적인 효과, 다양성,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td> </tr> </table>	구분	6학년	7학년	8학년	리허설·평가·개선	a. 교사 제시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	a. 협력연주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연주자의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감정적인 효과,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	a. 개인 맞춤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연주자의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감정적인 효과, 다양성,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				
구분	6학년	7학년	8학년										
리허설·평가·개선	a. 교사 제시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	a. 협력연주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연주자의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감정적인 효과,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	a. 개인 맞춤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연주자의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감정적인 효과, 다양성,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										
<p style="text-align: center;">연주발표를 통한 작품의 의미 전달</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2 1167 475 1612">구분</td> <td data-bbox="475 1167 724 1612">6학년</td> <td data-bbox="724 1167 959 1612">7학년</td> <td data-bbox="959 1167 1214 1612">8학년</td> </tr> <tr> <td data-bbox="432 1612 475 1619">발표</td> <td data-bbox="475 1612 724 1619">a. 기술적인 정교함으로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하기</td> <td data-bbox="724 1612 959 1619">a. 기술적인 정교함과 세련된 표현력으로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td> <td data-bbox="959 1612 1214 1619">a. 기술적 정교함, 세련된 표현력, 문화적 모사 훈련을 통해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td> </tr> <tr> <td></td> <td data-bbox="475 1619 724 1626">b. 공연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과 장소와 목적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td> <td data-bbox="724 1619 959 1626">b. 공연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와 장소, 목적, 상황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td> <td data-bbox="959 1619 1214 1626">b. 공연 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와 장소, 목적, 상황, 스타일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td> </tr> </table>	구분	6학년	7학년	8학년	발표	a. 기술적인 정교함으로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하기	a. 기술적인 정교함과 세련된 표현력으로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	a. 기술적 정교함, 세련된 표현력, 문화적 모사 훈련을 통해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		b. 공연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과 장소와 목적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	b. 공연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와 장소, 목적, 상황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	b. 공연 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와 장소, 목적, 상황, 스타일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
구분	6학년	7학년	8학년										
발표	a. 기술적인 정교함으로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하기	a. 기술적인 정교함과 세련된 표현력으로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	a. 기술적 정교함, 세련된 표현력, 문화적 모사 훈련을 통해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										
	b. 공연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과 장소와 목적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	b. 공연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와 장소, 목적, 상황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	b. 공연 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와 장소, 목적, 상황, 스타일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										

*주요용어: 교사 제시 수행기준(teacher-provided criteria), 협력연주 수행기준(collaboratively-developed criteria), 개별연주 수행기준(personally-developed criteria), 개인 맞춤 수행기준(personally-developed criteria)

11) <http://www.nationalartsstandards.org>, 2016년 3월 접속.

개정안은 앞서 제시한 연주하기 영역 이외에도 창작하기, 반응하기, 연계하기의 영역에 대해서도 주요기준과 수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음악 과목을 배우게 되는 8학년을 예시로 선정하여 살펴보면, <표 10-3>과 같다.

4개의 활동영역별로 1~3개씩 총 11개의 주요기준(Anchor Standards)을 제시하고, 주요기준별로 다시 1~3개씩 총 21개의 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s)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3> 미국 8학년 기준 2014년 개정안의 수행기준 예시

미국 개정안 8학년 수행기준 (8학년)			
영역	주요기준 (Anchor Standards)	수행기준 (Performance Standards)	
창작하기	1. 예술적 아이디어/작품 발현 및 개념화	상상 (image)	a. 표현의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리듬, 선율, 하모니가 어우러지는 소절들과 확장된 형식(서론, 전위, 종결부를 포함)의 배음 반주를 만들어 보기
	2. 예술적 아이디어/작품 구성 및 발전	계획 및 구성 (plan & make)	a. 긴장과 이완, 통일과 변형, 균형을 나타내는 확장된 형식 안에서의 작곡, 노래 및 편곡을 위해 개인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선택·구성·기록하고 표현의도를 전달하기
			b. 개인의 울동적 소절, 멜로디 소절, 조화로운 연결진행 등을 기록하기 위해 표준/상징적 표기법을 사용하거나 오디오/비디오 녹음을 활용하기
	3. 예술작품 수정 및 완성	평가 및 개선 (evaluate & refine)	a. 작곡기법, 스타일, 형식, 음원 등의 적절한 사용법을 포함하는 기준을 선정하고 적용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평가하기
			b. 평가기준에 따른 선택에 대해 설명하고, 작품의 개선(보완) 방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발표 (present)	a. 통일과 변형, 긴장과 이완 등의 작곡기법과 균형감 있게 전달되는 표현의도를 통해 솜씨와 독창성을 보여주고, 이를 이용하여 만든 자신들의 작곡, 노래, 편곡 작품을 문서로 기록하고 최종버전을 발표하기

연주하기	4. 연주발표를 위해 예술 작품을 선택, 분석, 해석	선택 (select)	a. 개별 연주 수행기준 내에서 특정한 목적·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서 연주할 수 있는 대조적인 스타일의 연주곡을 선택하고, 가능한 표현 수준, 기술적 도전 범위, 선정 이유 등을 설명하기
		분석 (analyze)	a. 선정된 연주곡에서 형식적으로 대조되는 부분들의 구조를 비교하고, 음악적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하기 b.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 내에서 간단한 리듬, 멜로디, 하모니 기호를 활용해서 선정 곡에 대한 초견 실시 c.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음악적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석 (interpret)	a. 대조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연주하고, 음악적 요소들과 표현력(강약법, 박자, 음색, 아티클레이션/스타일, 악구나누기 등)을 통해 표현되는 악곡 해석 방법에 의해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입증하기
연주하기	5. 연주발표를 위해 예술적 테크닉, 작품을 발전 및 수정	리허설, 평가, 및 개선 (rehearse, evaluate & refine)	a. 개인 맞춤 수행기준(표기법의 올바른 이해, 연주자의 기술적 정확도, 독창성, 감정적인 효과, 다양성, 흥미)에 부합하도록 연습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정도에 따라 공연 일정을 결정하기
	6. 예술작품의 연주발표를 통해 의미 전달	발표 (present)	a. 기술적 정교함, 세련된 표현력, 문화적 모사 훈련을 통해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하며 음악을 연주하기 b. 공연 예절(무대매너, 복장, 행동 등)와 장소, 목적, 상황, 스타일에 걸맞은 관람 에티켓 보여주기
반응하기	7. 예술작품을 지각 및 분석	선택 (select)	a. CD 믹스 또는 라이브공연과 같은 음악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를 흥미 또는 특별한 경험과 연관 지어 묘사해보기
		분석 (analyze)	a. 음악 요소와 표현 성향이 어떻게 음악프로그램의 형식과 연관되는지 비교하기 b. 음악프로그램의 맥락을 다양한 장르, 문화, 역사의 시대성과 비교하고 확인하기

	8. 예술작품의 의도 및 의미 해석	해석 (interpret)	a. 대조적인 음악 프로그램에 관한 개인적인 해석을 지지하고, 장르, 문화, 그리고 역사의 시대성 내에서 창작자 또는 연주자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음악적 요소와 표현성향을 작품에 적용하고자 했는지 의도를 확인하고 설명하기
	9. 예술작품의 평가를 위해 기준을 적용	평가 (evaluate)	a. 음악 작품 또는 연주를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맞춤 수행기준을 적용하기
연 계 하 기	10.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종합, 관련지음		a. 개인의 관심사, 지식, 기술이 창작할 때, 연주할 때, 음악에 반응할 때 작용하는 개인적 선택과 의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11. 이해의 심화를 위해 예술적 아이디어 및 작품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음		a. 음악이 다른 분야의 예술, 규율, 다채로운 문맥, 그리고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기

*주요용어: 긴장과 이완(tension and release), 통일과 변형(unity and variety), 균형(balance)

2) 고등학교 과정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의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성취기준과 세부 활동내용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일반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으로 제공되는 음악과 생활 과목에 대한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미국은 고등학교 과정의 음악선택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9개 내용기준별로 수행능력에 따라 2단계(초급(Proficient)과 상급(Advanced))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양국의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은 모두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전에 통합되어있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구분하여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미국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음악과목을 앙상블, 이론 및 작곡, 음악테크놀로지, 건반악기의 4개의 과정으로 나누고, 각 과정별로 창작하기, 연주하기, 반응하기, 연계하기의 4개 영역별 주요기준과 수행기준을 제시하되, 수행능력에 따라 3-5단계(초급(Novice), 중급(Intermediate), 상급(Advanced), 고급(HS Accomplished), 최고급(HS Advanced))로 나누어 다른 난이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현행과정과 개정안의 성취기준(수행기준) 비교표는 <표 11>과 같다.

<표 11>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성취(수행)기준

구분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성취(수행)기준		비고
	한국	미국	
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생활) ·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특징을 설명 또는 표현 · 기존 악곡의 편집, 창작, 연주를 통한 다양한 표현 및 설명 · 공동음악활동을 통한 소통 · 음악적 가치판단과 타 경험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토론 ·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현상 및 음악적 차이점, 갈등과 소통에 대해 발표 · 장르의 해체와 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음악 선택과목에 대해 2단계로 구분된 수행기준 제시 · 초급(Proficient), 상급(Advanced) ※ 2014년 개정안과의 비교를 위해 내용기준별로 제시된 성취기준 중 일부내용만 발췌하여 기술 · 내용기준1,2,3(연주하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성취기준을 <표 11-1>에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교육지침의 성취기준은 2개의 단계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됨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과목분야(앙상블, 이론 및 작곡, 음악테크놀로지, 건반악기)로 분류하여 수행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정의 성취기준보다 전반적으로 모두 구체적으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 제작 및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 ·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 -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 ·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 ·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 -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 및 비평 · 음악관련 직업에 대한 조사 및 발표 · 국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로 각 3-5단계로 구분하여 수행기준 제시 · 초급(Novice), 중급(Intermediate), 상급(Advanced), 고급(HS Accomplished), 최고급(HS Advanced) ※ 수행기준은 매우 세부적이고 자세하여, 전문을 다 기술하기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과정과의 비교 등을 위해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기술 · 앙상블(Harmonizing Instruments Strand) 과정에서 발췌하여 9-12학년 성취기준을 <표 11-2>에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각 분야에 따라 3-5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기준을 제시하여 한국보다 성취기준이 더 세부적
--	---	---

현재 시행중인 미국의 고등학교(9-12학년) 음악교육 9개의 내용기준 중에서, 예시로 연주하기에 관련된 3개 항목만을 선정하여 항목별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표 11-1>과 같다.

<표 11-1> 미국 고등학교 현행교육과정 성취기준 예시

미국현행과정에서 내용기준 일부항목(노래, 악기연주, 즉흥연주)에 대한 성취기준	
내용기준	9-12학년에 대한 내용기준별 성취기준
다양한 레파토리의 곡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Proficient) · 4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성악곡목을 표현력과 기술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외워서 노래 · 무반주, 반주와 함께 4성부로 곡을 노래 · 발전된 앙상블 기술로 노래 - 상급(Advanced) · 5단계 수준의 성악곡목을 표현력과 정확성을 가지고 외워서 노래 · 4성부 이상의 곡을 노래 · 작은 앙상블과 함께 노래
다양한 레파토리의 악곡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Proficient) · 4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악기를 표현력과 정확성을 가지고 연주 · 발전된 앙상블 기술로 연주 · 작은 앙상블과 함께 연주 - 상급(Advanced) · 5단계의 수준에 해당하는 기악 연주곡목을 표현하면서 연주
가락, 변주곡, 반주를 즉흥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Proficient) · 문체론적으로 반주들을 즉흥연주 · 5음 음계와 장조, 단조에서 나타난 간단한 선율, 음계들을 즉흥연주 · 화음, 박자, 조성에 일관성을 가지는 리듬 반주에 맞추어 기존 선율들을 즉흥연주 - 상급(Advanced) · 문체론적으로 음악적 양식의 화음들을 즉흥연주 · 음악적 양식, 박자, 조성에 일관성을 가지는 리듬 반주에 맞추어 기존 선율들을 즉흥연주

개정안에서 미국 고등학교 음악선택과목 4개 중 앙상블(Harmonizing Instruments Strand) 과정을 선택하고, 그 중 연주하기 영역을 예시로 선정하여, 해당 영역의 활동별 수행기준을 살펴보면 <표 11-2>와 같다.

연주하기 영역 내에서의 주요기준은 중학교 과정과 유사한 패턴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선택과목이 앙상블 과정이었으므로 수행기준은 앙상블 과정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주하기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목임을 고려하여, 학년에 따른 난이도가 아닌 학습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심화되고 다변화된 수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2> 미국 2014년 고등학교 음악교육기준 개정안의 수행기준 예시

개정안의 수행기준 예시 - ‘앙상블(Harmonizing Instruments Strand)’ 과정의 ‘연주하기’ 영역만 발췌 -						
주요 기준	수행기준					
	구분	초급 (Novice)	중급 (Intermediate)	상급 (HS Proficient)	고급 (HS Accomplished)	최고급 (HS Advanced)
연주 작품 선택·분석·해석	선택	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 등이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선정할 때, 공연의 맥락 뿐 아니라 개인적 흥미, 초견 및 기술적 능력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하고 입증	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 등이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선정할 때, 공연의 맥락 뿐 아니라 개인적 흥미, 초견 및 기술적 능력(제시해야하는 기술적 도전을 인용하여)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하고 입증	다양한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여러 기법 (arpeggio, country and gallop strumming, finger picking)의 화음반주를 포함하는 소그룹/개인 공연을 위한 음악 레파토리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명	개인/소그룹 공연을 위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다양한 스타일의 화음반주)의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	개인/소그룹 공연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에 포함될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세련되고 적절한 반주, 다양하고 대조되는 스타일의 즉흥연주를 포함하는)의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
	분석	멜로디, 레파토리곡, 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기법 읽기 기준을 포함하는 화음반주 등의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에 내재된 주	멜로디, 레파토리곡, 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기법 읽기 기준을 포함하는 화음반주 등의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에 내재된 주된 멜로디/하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다양한 기법 (arpeggio, country and gallop strumming, finger picking)의 화음반주 등의 다양한 음악 레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여러 스타일의 화음반주 등의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에 내재된 중요한 이론적/구조적 특성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문맥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세련되고 적절한 반주, 다양하고 대조되는 스타일의 즉흥연주를 포함하는 음악프로그램에 들어갈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

	<p>된 멜로디와 하모니의 특성을 확인하기</p> <p>모니/구성상의 특성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확인하기</p> <p>파파리에 내재된 중요한 이론적/구조적 특성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확인하고 묘사</p> <p>을 확인하고 묘사</p> <p>에 내재된 중요한 이론적/구조적 특성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확인하고 묘사</p>
해석	<p>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가 포함된 공연에서 연주될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의 표현의도와 문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묘사하고 입증</p> <p>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가 포함된 공연에서 연주될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에 내재된 표현의도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문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묘사하고 입증</p> <p>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가 포함된 공연에서 연주될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에 내재된 표현의도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문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묘사하고 입증</p> <p>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여러 스타일의 화음반주 등이 포함된 공연에서 연주될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에 내재된 표현의도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문맥을 해석하고 설명</p> <p>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세련되고 적절한 반주, 다양하고 대조되는 스타일의 즉흥연주를 포함하는 음악프로그램에 들어갈 레파토리에 내재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문맥에 따른 작품 해석을 설명하고 보고서 제출</p>
예술적 테크닉 개발 및 보완	<p>구분</p> <p>초급 (Novice)</p> <p>중급 (Intermediate)</p> <p>상급 (HS Proficient)</p> <p>고급 (HS Accomplished)</p> <p>최고급 (HS Advanced)</p>
	<p>리허설, 평가, 보완</p> <p>공연을 위해 선정된 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가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개별 공연에 대해 교사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평하고, 연습무대에서 연주내용을 개선하여 공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p> <p>공연을 위해 선정된 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가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개별 공연에 대해 교사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평하고, 연습무대에서 연주내용을 개선하여 공연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p> <p>다양한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여러 기법(arpeggio, country and gallop strumming, finger picking)의 화음반주가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소그룹/개인 공연에 대한 비평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연주내용을 개선하고 공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리허설 무대를 제공</p> <p>다양한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여러 스타일의 화음반주 등이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소그룹/개인 공연에 대한 비평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연주내용을 개선하고 공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리허설 무대를 제공</p> <p>음악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세련되고 적절한 반주, 다양하고 대조되는 스타일의 즉흥연주를 포함하는)를 연주하는 소그룹/개인 공연에 대한 비평 기준을 개발하여 여러 가지 자료에서 얻은 피드백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연주내용을 개선하고 공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리허설 무대를 제공</p>

구분	초급 (Novice)	중급 (Intermediate)	상급 (HS Proficient)	고급 (HS Accomplished)	최고급 (HS Advanced)
연주 발표를 통한 작품의 의미 전달	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가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개인 공연에서 표현력과 기술의 정확도를 가지고 연주함으로써 관객과 곡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멜로디, 레파토리곡, 화음반주가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개인 공연에서 표현력과 기술의 정확도를 가지고 연주함으로써 관객에 대한 감수성을 표현하고 곡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다양한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여러 기법 (arpeggio, country and gallop strumming, finger picking) 의 화음반주가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소그룹/개인 공연에서 표현력과 기술의 정확도를 가지고 연주함으로써 관객에 대한 감수성을 표현하고 곡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다양한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여러 스타일의 화음반주 등이 포함된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소그룹/개인 공연에서 표현력과 기술의 정확도를 가지고 연주함으로써 관객에 대한 감수성을 표현하고 곡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음악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다양한 음악 레파토리 (멜로디, 레파토리곡, 즉흥연주, 세련되고 적절한 반주, 다양하고 대조되는 스타일의 즉흥연주를 포함하는)를 연주하는 소그룹/개인 공연에서 표현력과 기술의 정확도를 가지고 연주함으로써 관객에 대한 감수성을 표현하고 곡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발표				

*주요용어: 교사 제시 수행기준 (teacher-provided criteria), 그룹/개인 공연 (Individual and small group performances), 비평기준 (Criteria to critique),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Context-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2.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음악교육프로그램 비교

한국과 미국의 음악교육과정/정책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미국 음악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와 국내의 중등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 및 활동내용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로는 서울에 소재한 국내 중등학교 2개교와 미국의 음악교육정책을 기반으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2개교를 선정하였다. 외국인학교는 비교대상인 국내 중등학교와 동일한 도시인 서울에 있는 국내 외국인학교와, 서울과 동일한 산업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 외국인학교를 선택하여, 소재지에 따른 변수를 통제해 보고자 하였다.

각 학교의 음악프로그램은 구성체계, 목표(성격), 음악활동 내용체계 그리고 수행기준을 총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각 학교에 진행하고 있는 합창(Choir), 밴드(Band), 오케스트라(Orchestra) 등과 같은 음악분야 방과 후 활동내용도 음악교과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가. 총괄내용 비교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의 구성체계는 크게 음악교육 목표, 음악활동 내용체계, 음악활동 성취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악프로그램 비교를 위해 선정한 조사대상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와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체계 및 과목총괄표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 구성체계 및 과목

구 분	국내 중등학교		외국인학교		비고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6-8학년	9-12학년	
구성체계	1. 음악교육 목표 2. 음악활동 내용체계 3. 음악활동 성취기준		1. 음악교육 목표 2. 음악활동 내용체계 3. 음악활동 수행기준		· 국내 중등학교는 성취기준, 외국인학교는 수행기준을 제시
음악과목	음악	음악과 생활	일반음악	학교별로 다양함	·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 모두 중학교는 의무교과, 고등학교는 선택교과
수업형태	의무교과	선택교과	의무교과	선택교과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의 학제를 살펴보면, 국내 중등학교가 6-3-3-4 학제.¹²⁾에 따라 중학교 3년(7-9학년에 해당), 고등학교가 3년(10-12학년에 해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국인학교는 중등학교(Secondary Education) 교육을 중학교에 해당되는 6-8학년(3년)과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9-12학년(4년)의 학년군으로 나누어 음악교육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음악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동일 학년끼리 살펴보지 않고, 학년군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음악프로그램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국내 중등학교는 ‘음악활동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수업 후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외국인학교에서는 활동에 대한 수행기준의 형태로 제시하여 다양한 음악활동 자체를 강조하고

12)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pp. 58-59.

있다. 음악분야 교과목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국내학교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과, 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 선택교과로 음악과목을 개설하고 외국인학교에서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과로 일반음악을 가르치고, 고등학교부터는 학교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음악과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교과로 음악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나. 음악교육 목표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는 개설하고 있는 음악과목의 성격에 맞는 음악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음악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학년도 나타난다. 국내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년별 음악교육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 고등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음악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통합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 모두 음악교육을 통한 전인간적인 인격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국내 중등학교 음악교육과목은 음악적 표현능력과 창의성을 좀 더 강조하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음악교육의 대중화 및 다양한 음악수업에의 참여 기회 제공을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들의 학교별 음악교육 목표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국내 중등학교 및 외국인학교의 음악교육 목표

학교	교육목표
국내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음악적 감각, 가창, 즉흥적 표현 능력 개발 및 태도 향상 * (3학년) 표현능력, 창의성, 인간성을 증시하고 일상생활의 음악적 체험을 통해 전인적 인간을 양성
국내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년)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배양
국내 외국인학교 ¹³⁾	음악의 조기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음악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독일 외국인학교 ¹⁴⁾	개인의 지성, 창의력,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 음악적 영감의 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음악수업에 적극 참여 유도

다. 음악교과/활동 내용체계

1) 학교별 음악교과/활동 내용

국내 중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 모두 일반음악수업을 의무교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학생의 흥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음악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하지만 국내 중등학교에는 음악수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선택활동이 다양하지 않은 반면, 외국인학교들의 경우에는 일반음악수업 이외에도 합창, 밴드, 오케스트라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과

13) <http://www.apis.seoul.kr/main>, 2016년 1월 접속.

14) <http://www.fis.edu>, 2016년 1월 접속.

음악분야 심화과정의 교과까지 제공하여 학생들이 흥미정도에 따라 훨씬 더 깊이 있는 음악적 환경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자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의 학교별 음악수업내용을 일반음악(Music), 합창(Chorus & Choir), 밴드(Band), 오케스트라(Orchestra), 심화과정(AP & IB)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학교별 음악교과/활동 내용

학 교 구 분	일반음악 (Music)	합창 (Chorus & Choir)	밴드 (Band)	오케스트라 (Orchestra)	심화과정 (AP & IB)
국내 중학교	◎	○	○		
국내 고등학교	○		○		
국내 외국인학교	◎	○	○	○	○
독일 외국인학교	◎	○	○	○	○

※ 의무교과는 ◎, 선택활동(선택교과 또는 방과 후 활동)은 ○로 표시

2) 학교별/학년별 음악교과/활동 세부내용

국내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학교 과정 3년(7-9학년) 중 일반음악수업이 2년간의 의무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방과 후 활동으로 밴드와 합창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국내 고등학교는 음악과목 자체가 선택교과로 포함되어 음악을 선택한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3년간의 고등학교(10-12학년) 과정 중 1학년과 2학년 때에만 음악과 생활 교과가 편성되어 있으며, 밴드 활동 이외의 음악분야 방과 후 활동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중

학생일 때 보다 고등학생일 때 학교에서의 음악적 노출이 상당 부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학교는 일반음악이 중학교 3년(6-8학년)간의 의무교과로 제공되고,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9-12학년) 중에는 , 고급합창, 고급밴드, 고급오케스트라 등의 활동과 AP 음악이론(AP Music Theory)¹⁵⁾ 교과가 정규수업으로 개설되어 학생이 흥미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방과 후 활동으로도 재즈밴드(Jazz Band), 아카펠라(A Cappella), 합창, 챔버오케스트라(Chamber Orchestra) 등의 다양한 음악적 협력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등과정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되던 합창, 밴드, 오케스트라 활동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규교과로도 개설하여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 있는 외국인학교도 중학교 3년(6-8학년), 고등학교 4년(9-12학년)의 학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의무교과로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로 다양한 음악교과가 제공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모든 예술과목들 중 한 분야만을 필수로 선택하여 수강하면 되므로 음악교과의 선택이 필수는 아니지만, 학생이 원한다면 1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1학년부터는 일반 음악 수업과 함께 심화과정인 IB 음악(IBDP Music)¹⁶⁾ 도 정규수업으로 개설되어 있다. 또한, 6학년부터 밴드, 합창, 오케스트라 등의 음악활동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을 통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오디션을 통해 심화반인 재즈밴드(Jazz Band), 학교명예밴드(FIS Honor Band), 학교대표싱어(FIS Singers), 학교명예현악밴드(FIS Honor Strings), 외국인

15) AP (Advanced Placement) : 미국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College-level의 수준 높은 교과 과정을 의미한다.

16)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 IB는 IB Diploma Program을 의미하며 2년에 걸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며 매년 5월과 11월에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개념의 시험이 이루어진다.

학교연합오케스트라(International Schools Honor Orchestra Festival) 등의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많은 연주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 학년별로 제공하고 있는 음악교과 및 활동의 세부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학교별/학년별 음악교과/활동 세부내용

구 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국내 중등 학교	학제구분	초등학교	국내 중학교(3년)			국내 고등학교(3년)		
	의무 교과		일반 음악		일반 음악			
	선택 교과					음악과 생활	음악과 생활	
	방과 후 활동		밴드, 합창			밴드		
국내 외국 인학 교	학제구분	중학교(3년)			고등학교(4년)			
	음 악 교 과	의무 교과	음악6	음악7	음악8			
	선택 교과				- 고급합창, 고급밴드, 고급오케스트라, - AP음악이론 (10학년부터 수강 가능)			
	방과 후 활동	- 재즈밴드, 아카펠라, 합창, 챔버오케스트라						
독일 외국 인학 교	학제구분	중학교(3년)			고등학교(4년)			
	음 악 교 과	의무 교과	음악6	음악7	음악8			
	선택 교과				음악9	일반 음악10	일반음악11, IBDP(HL ¹⁷)1, SL ¹⁸)1)	일반음악 12, IBDP(HL2, SL2)
	방과 후 활동	- 밴드, 합창, 오케스트라 - 재즈밴드, 학교명예밴드, 대표싱어, 학교명예현악밴드, 외국인학교연합오케스트라 등						

3) 학교별 음악교과/활동 세부내용

가) 국내중학교 음악교과 세부내용

국내 중학교의 음악교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현(가창, 기악, 창작)과 감상 및 생활화영역의 활동을 통해 음악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연주력을 향상시키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음악의 형식, 구조, 리듬, 화성, 가락, 셈여림, 빠르기, 음색, 양식 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중학교 음악교과 세부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국내 중학교 음악교과 세부내용

구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표현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어 부른다. · (심화)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독창, 중창, 합창을 지휘한다. · 상기 내용 이외에는 (좌동)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17) HL (High Level) : 고급 단계.

18) SL (Standard Level) : 표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유형의 반주를 한다.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독주, 중주, 합주를 지휘한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 ·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 배운 곡을 변화시킨다. ·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는다. · 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든다. ·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든다. · 만든 곡을 발표한다. ·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 주제를 변주한다. · 상기 내용 이외에는 (좌동)
감상 및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한다. ·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는다. · 다양한 악곡의 연주형태를 구별하며 듣는다.(협주) · 우리나라 가곡, 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 연례악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한다.(의식과 음악) · 음악을 듣고 평한다. ·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 다양한 악곡의 연주형태를 구별하며 듣는다.(무반주 성악) · (심화) 전통 가곡, 아리아 등 성악곡과 소나타, 푸가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 (심화)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학교 내외에서의 음악) · 상기 내용 이외에는 (좌동)

국내 중학교의 1학년과 3학년의 음악교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현(가창/기악/창작)과 감상 및 생활화영역에서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더욱 심화하여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음악교과 외에 방과 후 활동으로 밴드와 합창 수업이 선택활동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활동내용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음악교과와 방과 후 활동의 확장과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국내고등학교 음악교과 세부내용

국내 고등학교의 음악교과를 살펴보면, 음악과 생활을 1학년과 2학년의 선택교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고등학교 음악교과 세부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국내 고등학교 음악교과(음악과 생활) 세부내용

구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표 현	가 창	· 제재곡을 풍부한 발성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기와 가사 및 계이름으로 부르기 · 바른 프레이징으로 부르기 ·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고 곡의 분위기를 살려서 부르기
	창 작	· 학생들의 기본 능력과 자신의 음악적 의도를 여러 가지 기법과 매체를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 발표력을 향상
	시 창	· 악보를 읽고 악보와 관련된 사항과 악곡의 각 요소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독보력 향상

	기 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악에 대한 연주능력과 다양한 악기를 접해 보도록 한다. · 독주, 중주 및 합주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다. · 연주능력을 키울 수 있다.
감상 및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회 관람을 통하여 클래식 음악회의 분위기를 몸소 체험 ·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음악을 감상 ·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며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통찰하는 능력 향상

교육과정의 목표와 영역에 따라 음악활동내용은 표현(가창, 기악, 창작, 시창)과 감상 및 생활화 영역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우선 표현 영역의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가창은 학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1학년은 시창 및 창작을, 2학년은 기악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상 및 생활화 영역은 학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1학년과 3학년에 모두 동일한 활동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밴드활동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과학습과 연계된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내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세부내용

국내 외국인학교는 중학교과정에 포함되는 6-8학년의 음악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음악,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으로 구분하였다. 고등학교과정에 포함되는 9-12학년의 음악교육과정 내용체계는 고급 오케스트라(Advanced Orchestra), 고급 밴드(Advanced Band), 고급 합창단(Advanced Chorus), AP 음악 이론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국내 외국인학교 음악교과 및 활동의 세부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국내 외국인학교 음악활동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6-8학년 (일반과정)	9-12학년 (고급과정)
음악 (Music)	· 음악의 기초 및 구성요소를 학습하고, · 합주를 통해 팀워크와 리더십 함양	-
밴드 (Band)	· 밴드 연주 활동을 통해 음악 이론, 역사, 공연의 음악적 방식에 대해 이해	· 심화된 수준의 밴드 연주를 통하여 음악적 기교 및 감상 능력을 향상하고, 공연 참가 기회 제공
오케스트라 (Orchestra)	· 기초적인 연주 기술 및 합주 훈련을 통해 음악 기본 능력 배양	· 개별연주 또는 합주를 통해 다양한 연주 기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장르와 문화적 배경의 음악과 음악적 요소를 이해
합창 (Choir)	· 다양한 합창곡을 노래하며, 가창기법, 작곡, 악보 읽기, 음악 이론 등을 학습	· 고급 합창기법을 연습하고, 다양한 합창문화와 시각의 폭을 넓히며, 오디션 및 공연 추진
대학 음악이론 (AP Music Theory)	-	· 음악적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음악적 이론(시창 및 청음, 작곡, 초견, 악곡분석 등)을 이해하고 학습

라) 독일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세부내용

독일 외국인학교의 음악교과 및 활동은 학년에 따라 일반 음악, 밴드, 심화과정으로 세부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학년별로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의무교과와 학생의 흥미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선택교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예시로 6학년, 9학년, 11학년에 해당하는 교과 및 활동의 세부내용을 선정하여, <표 1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9> 독일 외국인학교의 학년별 음악활동 세부내용

학년 구분	음악교과	방과 후 활동
6 학 년	<음악6>	<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자 수준으로 음악이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듣기, 노래하기, 연주하기, 간단한 실용음악 만들기 등 · 음악의 역사 및 탄생 과정을 이해하고, 타 문화 및 분야와 연계하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로연주 및 합주연주를 하는 밴드 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다양한 공연 및 협연 기회 제공
9 학 년	<음악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학습한 음악적 활용능력, 이론, 이해, 표현능력, 작곡 등의 음악 지식을 종합할 수 있도록 훈련 · 음악을 듣고, 표현하고, 창작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1 학 년	<음악10-12>	<IBDP 음악 SL H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학습한 음악적 활용능력, 이론, 이해, 표현, 작곡 등의 음악 지식을 종합할 수 있도록 훈련 · 중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음악을 분석·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향상 · 음악을 주어진 지침에 따라 창작하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읽고, 최소 한 가지 악기로 연주 가능한 뮤지션이 되기 위해, 선택한 악기나 목소리로의 공연 능력 개선 · 음악적/세계적으로 음악적 요소와 역사를 깊이 이해 · 다양한 시대/지역/장르의 음악과 구성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음악과 역사적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 · 작곡했던 곡이나 편곡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작곡 시도

라. 음악교과/활동 성취기준

1) 국내 중학교 음악교과/활동 성취기준

국내 중학교는 평가의 기본 방침에 따라 성취기준을 목표, 내용, 과정에 부합되도록 하며, 어느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표현(가창/기악/창작)과 감상 및 생활화영역에 따라 <표 20>과 같이 성취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20> 국내 중학교 음악교육 성취기준

구분		성취기준
표현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성기 유의 · 음악의 구성 요소, 악상 표현, 음악적인 자세 등을 고려 · 외워 부르기 · 올바른 가사 전달 및 바른 입모양과 발성 · 창의적 전달력 및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 · 전체적인 예술성과 완성도 및 학급 학생들의 호응도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중심보다는 바른 주법, 악상의 창의적인 표현과 태도 · 외워 연주하기 · 음악의 리듬, 멜로디, 하모니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 · 박자, 빠르기 등 악곡의 표현 능력 · 프레이징의 음악적 표현 · 바른 호흡과 자세 · 창의적인 전달력 및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 · 전체적인 예술성과 완성도 및 학급 학생들의 호응도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과 느낌을 표현 · 창의적 활동 증시 ·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 · 전체적인 예술성과 완성도
감상 및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흥미, 태도, 이해의 적용을 증시 ·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

국내 중학교는 학년별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영역 및 활동분야별 성취기준을 기술해 놓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현영역에서 창작보다는 가창 및 기악 활동에 대한 성취기준들이 더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표현 활동에서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공통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2) 국내 고등학교 음악교과/활동 성취기준

국내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 내용에 따라 표현(가창, 창작, 시창, 기악) 및 감상 및 생활화영역으로 구분하여 <표 21>과 같이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실기 수행평가의 성취도 반영에 활용하고 있다.

<표 21> 국내 고등학교 음악교육 성취기준

구 분		성취기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표 현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리듬, 장단,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기, 음색, 짜임새, 형식 등)와 원리(통일성과 다양성, 반복과 대조 등)를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음악을 창의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음악의 일부분을 연주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여럿이 함께하는 합창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협업의 즐거움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상기 내용 이외에는 (좌동)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리듬, 장단,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기, 음색, 짜임새, 형식 등)와 원리(통일성과 다양성, 반복과 대조 등)를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음악을 창의적으로 창작할 수 있다. · 음악의 일부분을 창작할 수 있다. 	
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리듬, 장단,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기, 음색, 짜임새, 형식 등)와 원리(통일성과 다양성, 반복과 대조 등)를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
기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리듬, 장단,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기, 음색, 짜임새, 형식 등)와 원리(통일성과 다양성, 반복과 대조 등)를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음악을 창의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 음악의 일부분을 연주할 수 있다. · 여럿이 함께하는 합주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협업의 즐거움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감상 및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연주자, 교사, 친구 등의 연주를 듣고, 악곡의 구성 요소와 원리에 따라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관련된 가치 판단이 사회, 경제, 정치, 환경, 종교적 경험과 맺는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편집하거나 변형된 음악을 영상이나 춤 등에 어울리는 표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여러 문화권의 음악적 특성을 이해하고 감상 할 수 있다.

국내 고등학교에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원리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도에 따른 창의

적인 표현이 가능한지' 등을 표현영역에서의 공통적인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감상 및 생활화영역에서는 1학년 때에는 연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2학년 때에는 음악의 문화적·정치적·역사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 심화·확장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국내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수행기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국내 중등학교와는 달리 성취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반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음악활동에 대해 수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음악과 대학음악이론 수업 뿐 아니라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등의 활동의 내용에 대한 수행기준을 제시하여 수업과 선택활동의 연계와 시너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학교 음악활동 내용 및 수행기준은 <표 22>와 같다.

<표 22> 국내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수행기준

구분	세부내용	
	6-8학년 (일반과정)	9-12학년 (고급과정)
음악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강의 구성 · 음악 구성의 주요요소인 읽기, 듣기, (악보에) 기록하기, 실행하기를 강조 · 팀워크와 리더십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지휘자 인도 하에 합주 실시 	-
밴드 (B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드 악기 습득 및 활용 · 이론, 역사적 배경, 연주와 음악적 지식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레벨 수준의 밴드 연주곡목을 공연 · 이전 학습 개념과 향상된 기술로 음악적 기교 및 음악 감상 능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읽고, 알맞은 톤을 만들어내고, 합주자의 억양(Intonation)을 듣고 균형을 맞추는 법을 훈련 · 콘서트 공연에 참가하고 학교 이외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한 연습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IS 국제명예밴드와 한국국립명예밴드를 위한 오디션과 솔로&합주음악 Festival 참여 · 목관, 금관, 타악기를 최소한 2년 이상 연주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밴드에 가입
오케스트라 (Orches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현악기 연주 기술 습득 · 합주 연주 기술을 목표로 악기를 연주하고, 악보를 읽고, 더 나아가 현악기 연주 기술에 대한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익히고 작곡 · 리듬, 멜로디, 하모니, 조화(texture), 음색과 같은 음악적 요소 이해 · 폭넓은 장르와 문화에 사용된 대조적인 스타일의 음악 이해 ·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주 실시 · 고급 연주기법을 습득하고, 연주의 폭과 음악적 용어의 이해를 넓힘 · 템포, 다이내믹, 아티클레이션과 같은 기준 표기법의 정의를 이해하고 습득 · 보잉, 튜닝, 비브라토 등 무대에서의 연주 표현법 등의 기술을 익힘
합창 (Cho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창기법과 공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노래하며, 다양한 합창곡의 음악 탐구 · 가창기법에 대해 배우며, 작곡, 악보 읽기, 음악 이론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으로 가창기법을 연습하고 음악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학습 · 다양각색인 합창 문화의 시각적 폭을 넓힘 · 학생들은 숨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모음과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을 익힘 · 음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하며, 합창단 학생들은 다양한 축제와 콘서트에 참가 · AMIS 국제명예합창단과 한국국립명예합창단, KIMEA 솔로와 합창 음악 축제 오디션 참가
대학 음악 이론 (AP Music Theor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기술 발전을 위한 음악적 이론 이해 · 시창법과 작곡을 포함한 청음 기술 습득 ·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악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훈련 · 악기와 목소리를 통해 익숙하게 공연을 해내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 · 청음 및 시창, 음악적 용어, 음악적 분석, 기본적인 작곡, 코드 형태와 화음, 그리고 다른 분야의 음악 이론을 학습

4) 독일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수행기준

독일 외국인학교 또한 성취기준이 아닌 수행기준의 형태로 음악교과 및 선택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 국내 외국인학교와 달리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음악교과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수행기준을 제시하고, 방과 후 활동인 밴드의 수행기준은 학년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방과 후 활동인 오케스트라, 합창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동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독일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내용 및 수행기준은 <표 23>과 같다.

<표 23> 독일 외국인학교 음악교과/활동 내용 및 수행기준

학년구분	음악교과 또는 선택활동	
6학년	<p>< 음악6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강화 ·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성장 · 타 분야의 연계 · 뮤지컬 이해, 음악의 학습을 공부, 노래하기,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 듣기, 악기 연주, 음악의 역사와 실제적인 음악의 탄생 과정을 익힘 · 우쿨렐레를 통해 실용적인 음악 만들기 학습 · 학습의 단위: 작곡가들, 프로그램 음악, 음악 이론 (초보자 레벨), 기초 화성학, 우쿨렐레 	<p>< 밴드 ></p> <p>밴드를 통해 재능을 발견할 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 밴드와 합주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디션 시행 · 콘서트에서 솔로 파트로도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 · 국제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명예 밴드 프로그램 뮤지컬에 참여 · 폴란드, 영국, 파리, 베를린, 프라하 등 밴드 여행 참여 · 메인 밴드와 더불어 앙상블, 솔로 파트, 재즈를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학기 중에 제공 · 매주 목요일 방과 후에는 재즈밴드 수업 진행 (클라리넷 4중주, 색소폰 그룹)
9학년	<p>< 음악9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쌓아둔 음악 literacy, 이론, 이해, 행위와 작곡과 같은 음악에 대한 지식을 합병하도록 설계 · 음악을 듣고, 행하고, 창작하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공감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의 단위: 음악에 대한 이론 (조표와 주요삼화음), 웨스트사이드스토리 (역사, 뮤지컬 분석, 노래 퍼포먼스가 나타나 있는 뮤지컬영화), 재즈 (재즈의 다양한 타입의 역사와 분석), 블루스 (블루스 그룹의 분석, 이론과, 작곡, 공연), 락 & 롤 	
11학년	<p>< 음악10-1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쌓아둔 음악 literacy, 이론, 이해, 행위와 작곡과 같은 음악에 대한 지식을 합병하도록 설계 · 중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음악을 분석, 감상 능력 향상 · 음악을 주어진 지침에 따라 창작하고 그것을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냄 · 적절하게 IBDP 음악 프로그램에서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표 · 작곡, 악보읽기와 쓰기, 그리고 음악적 분석을 익힘 · 이론적 화제 (특별히 조화와 형식)와 음악의 역사를 이해 · 학습 단위: 음악 이론 (메이저&마이너 키, 스케일과 코드; 음정; 단순의 & 합성의 박자표), 음악의 형태 (2진법의, 3진법/3변수의, 미뉴에트와 트리오/3중주곡, 변주곡, 소나타형식), 음악 역사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클래식, 낭만파, 근대), 작곡: (directed composition - 자유 작곡뿐 아니라 대개 공부한 형식과 기술에 기반) 	<p>< IBDP 음악 SL HL 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DP 음악 수업은 이미 음악을 읽고, 최소한 한 가지의 악기로 연주가 가능한 뮤지션을 양성해 내기 위해 구성 · 악기/가창에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과 함께 IB 수업 중에 많은 레슨을 제공 ·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 · 음악적으로/세계적으로 깊은 음악적 요소의 역사 이해 ·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심층적으로 이해 · 선택한 악기나 목소리로 공연 능력을 개선 · 본래 작곡했던 곡이나 편곡의 포트폴리오 개선 · 컴퓨터를 통해 음악 작곡 기회 제공 · 지정된 작품을 심도 있게 학습 · 서양음악과 비서양 음악의 분석 · 학습 단위: 바로크 음악, 클래식 음악 (다양한 예시를 통한 분석, 소나타 형식, 논문 쓰기), 낭만파 인도의 클래식 음악, 낭만파 음악

IV. 결 론

한국, 미국의 음악교육과정(또는 교육정책) 및 외국인학교와 국내의 중등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내 음악교육과정과 국내 중등학교 음악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교육과정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한국 개정안에서 성격항목을 추가하고 교수·학습방법 내용을 평가와 통합기술하며 더욱 유사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미국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한국은 현행안과 개정안 모두 학습내용을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지만, 미국은 현행안에서 9개의 개별 음악활동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미국 개정안에서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학생간의 협연’ ‘창작’ ‘타과목과의 연계’를 한국보다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음악활동을 통해 도달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행동의 범주 내에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개정안에서는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만, 미국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수행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평가’보다는 ‘음악활동’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활동들에 대한 세부내용이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방대해진 경향이 있다.

넷째, 국내 중등학교와 미국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6-12학년)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중등학교는 3+3년, 외국인학교는 3+4년의 학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는 중학교는 의무교과로, 고등학교는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

었다.

다섯째,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음악교육은 모두 음악을 통한 전인간적인 인격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국내 중등학교에서는 음악적 표현능력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음악교육의 대중화 및 다양한 음악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여섯째, 국내 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영역별(표현, 감상 및 생활화)로, 외국인학교에서는 일반음악,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음악심화과정 등 음악활동별로 세부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국내 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외국인학교에서는 음악활동별로 수행기준을 제시하는 등 각국의 교육과정(또는 정책)에 맞추어 음악교육을 추진 중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국내 중등학교와 외국인학교 모두 음악 정규수업 이외에도 음악선택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수의 방과 후 활동만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중등학교와는 달리, 외국인학교는 합창, 밴드 활동은 물론 오케스트라, 음악심화과정 등 수준별로 방과 후 활동과 선택교과를 구성·운영하여 음악연계 학습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한국의 음악교육과정과 국내 중등학교 음악활동이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현행교육과정과 개정안에서 세부내용들이 더욱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중등학교에서는 음악수업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과로 고등학교는 선택교과로 실시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선택활동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활동을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운영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음악적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음악교육과정과 국내 중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음악교육과정과 비교하고 미국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외 외국인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과 음악활동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음악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실용적이며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과 전략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보완된 교육과정일지라도 과도한 입시로 예술과목이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배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중등학교와 다양한 국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의 음악교육과정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음악교육과정과 국내 중등학교 음악프로그램이 더욱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논 문

- 김덕전(2011). “한국, 미국, 이스라엘의 과학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희(2013). “한국과 영국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은(2010).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원(2009). “미국, 독일, 호주의 음악교육 분석에 따른 한국에서 효과적인 음악수업 지도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주현(2011).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영국과 캐나다 퀘벡 주 중심”, 「음악교육연구」, 제40권, 제3호, pp.215-249
- 송지민(2015). “한국과 호주 NSW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혜정(2007). “외국인 학교 음악 교육 현황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미영(2015). “미국 국가핵심음악기준의 분석적 고찰”, 「음악교육공학」, 제23호, pp.79-98

단행본

MENC(1994). *The School Music Program A New Vision*, MENC.

김한중(2013).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민경훈 외11인(2013). *음악교육학총론*, 학지사.

한혜정, 조덕주(2012). *교육과정*, 학지사.

홈페이지

<https://english.hessen.de/economy/financial-center-frankfurt>, 「주한독일대사관 Hessen-Frankfurt」

<http://ncic.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

<http://www.nationalartsstandards.org>, 「국가핵심예술기준(National Core Arts Standards) 미국 2014 개정안 수행기준」

<http://www.fis.edu>, 「프랑크푸르트국제외국인학교 Frankfurt International School」

<http://www.apis.seoul.kr/main>,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Asia Pacific International School」

ABSTRACT

An Analysis on the Music Education Programs at International Schools based on the United States Music Curriculum and Korean Secondary Schools

Kim, Soo-Ji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music program between in Korean middle & high school, and foreign school. In this study, the new music program is suggested, that is applied in Korean school. In addition the improvement has been considered. Moreover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wo foreign schools in Korea or overseas that is established upon US music curriculum are chose to specifically analyze and compare each schools music activities.

Firstly to compare curricular between Korea and US, the system is similar each other in general, and the character added in the Korean revised curriculum and learning method context and evaluation have been combined, these Korean and US curricular have become much more similar.

In the system of context much differences appear than similarities, for example, there are 3 separate areas(expression, appreciation, daily life) of learning content in Korea whereas US current educational system has 9 contexts indicating musical activities without compartment. In revised version, they are divided into 4 categories(creativity, performance, respond, connection) and context about 11 articles is described. While both Korea and US suggest achievement standard in the range of observable behavioral category, revised curriculum describes context in much detail and actualizes than previous one. US system provides not achievement standard but performance standard.

According to music education program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foreign schools(6-12 grade) run by American educational curriculum, it is compulsory education in middle school but optional in highschool in Korea. Likewise in foreign schools, just middle school(6-8 grade) education is compulsory and from highschool(9-12 grade) education, it is optional.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s provide music curriculum categorized by sections of expression, appreciation, daily life, while in foreign schools suggest contents to learn specified into musical activities such as general music, bands, orchestra, choir, and intensive course etc.

Performance standards in both school systems are different.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s suggest the standard comparted by sections and foreign schools suggest the standards by musical activities.

In both schools, they open various musical activities besides regular music clas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that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s provide only after-school activities but foreign schools proceed connection between after-school programs divided by different levels and intensified optional subjects.

As a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outcome from it has compar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that is desirable to have more detail, specified, and pragmatic amended music curriculum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critical to construct a system which could provide many music programs reflecting students interests and levels.